

경기대진테크노파크 현판식

10월 착공 앞두고 29일 임시 사무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지난 29일 오후 3시 대진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현판식을 갖고 임시사무실을 개원했다.

경기북부 중소기업에 산·학·연 협력체제를 통해 신기술을 제공할 대진테크노파크 조성공사가 오는 10월 시작된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이사장 손학규 감국보)는 지난 29일 오후 3시 대진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현판식을 갖고 임시사무실을 개원했다.

경기도와 대진대·포천시가 667억원을 들여 포천시 자작동 대진대학교내 3만평 부지에 건립하는 대진테크노파크에는 1단계로 오는 2007년까지 종합지원센터(3500평)

와 기술고도화센터(3000평)가 건립된다.

한편, 포천시는 대진테크노파크 조성사업과 가구산업 특화전략으로 경쟁력을 갖춰 나가게 된다. 특히 포천시는 가구단지 조성과 전문인력 양성, 가구산업과 관광코노믹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구산업 특화전략을 실행하는 한편 환경친화적인 신도시건설과 물류센터 유치 등을 결합해 오는 2020년까지 인구 35만의 거점도시로 성장하겠다는 전략이다.

지역배 기자 94spice@hanmail.net

농업발전의 메카 농업인의 집 준공

포천농업의 구심축...국내 최초 포천그린농업대학 개강

포천시 농업인들의 숙원이었던 '농업인의 집'이 지난 21일 준공, 개관했다.

농업인 교육 및 정보교류를 위한 장소로 활용될 이곳은 지역의 농업인 학습단체를 결집, 정예화 시키고 곳곳에 산재된 품목별 생산자단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천시는 이 곳을 명실상부한 '포천농업의 구심축' 역할을 할 다목적 공간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신북면 기지리 포천시 농업기술센터 본관건물 2층에 158평 규모로 증축된 농업인의 집은, 농업인 학습단체사무실, 품목별농업인연구회사무실, 원격영농화상교육장, 4-H사랑방, 농업자료실, 강의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6월부터는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등 10여 개 단체가 입주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시는 또한 이곳에 포천그린농업대학을 설치하고 분야별 전문기술 및 경영기술교육을 통해, 21세기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농업전문가를 육성할 계획이다.

다음달 개강하는 제1기 포천그린농업대학은 국내최초로 농업경영을 테마로 해 7월~12월까지 총 20주 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농업기초이론 및 교양강좌, 정보화교육, 현장실습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점차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과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농업의 선도자를 양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포천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1일에는 박운국 포천시시장과 홍성훈 포천시시장 및 의원, 지역농업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천시 농업인의 집 준공식을 개최했다. 박운국 포천시장은 지역농업인들에게 신기술과 정보를 제공하고 포천농업의 선도세력을 육성하는 '지역농업 클러스터의 중심축'으로 농업인의 집을 성장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역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시는 올해부터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로 개편, 시행됨에 따라 각 읍·면 산업담당과 담당자 등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7일 포천시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2005년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 설명회

'고정형직불'과 '변동형직불'로 운용

포천시는 논농업직불제와 소득보전직불제가 올해부터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로 개편, 시행됨에 따라 각 읍·면 산업담당과 담당자 등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7일 포천시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2005년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이 기존의 논농업직불제 및 소득보전직불제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농축산과장의 설명과 참석자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은 DDA 쌀협상으로 시장개방 폭이 확대돼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 농가의 소득이 적정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고정형직불'과 '변동형직불'로 구분, 운용된다.

현재 논벼를 재배하는 경우에는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타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는 '고정직불금'을 지급 받게 된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은 논농업직불제의 대상농지 4ha 면적상한 및 소득보전직불제의 농업인 납부금제도를 폐지하는 등,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일부 달라진 점이 있다. 다만 농업인은 매년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 제외된다. 사업대상 농업인은 등록신청서,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또는 마을대표 확인서 등 신청의 서류를 갖춰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포천동과 산단동은 시청 농축산과)에 등록 신청해야 한다.

지역배 기자 94spice@hanmail.net

금주2리 간이상수도 통수식

134가구 주민에 안정적 물 공급



영종면 금주2리 주민들이 마을에 설치된 간이상수도 관정을 통해 공급된 물을 음용해 보이고 있다.

간이상수도시설 완공으로 영종면 금주2리 주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받게 됐다.

포천시는 지난 22일 금주2리(이장 양영명) 마을회관에서 내빈 및 마을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간이상수도 통수식을 마쳤다.

통수식은 간이상수도 공사에 대한 양영명 이장의 경과보고와 박운국 포천시시장과 강태섭영종면의회의원에 대한 감사패 및 영우건설 최태영 대표에 대한 공로패 전달,

관계자들의 인사 및 축사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준공된 간이상수도 공사는 총예산 3억4천7백742천원이 소요됐으며, 지난해 8월 24일부터 올해 5월 30일까지 영우건설(주)이 시공했다.

간이상수도는 일반관정 2개소와 70톤 용량의 물탱크로 금주2리 154가구 중 134가구에 공급되게 된다.

지역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소득세 전자신고 어떻게 하나요?

신고서 작성전송 · 변환전송 중 편리한 방법 선택

사업자는 거래를 할 때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직불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정규영수증을 발행하거나 교부받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구매자에게 교부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계산서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주로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일반과세자(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등)는 영수증을 교부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으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게 되면,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에 대해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자의 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 증빙자료로 인정됩니다.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을 때는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에 아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면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실대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주고 받을 때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게 되며, 매입자는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거나 이를 중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계산서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구매자에게 교부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는 영수증입니다.

-소매업 등 주로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하면 됩니다.

-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 포함)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를 할 때는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계산서를 주고 받으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에 공급받고 계산서 등을 수취하고 이를 원재료로 하여 가공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이 과세되는 경우 매입가액의 2/102(음식업은 5/105)를 납부할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경우 음식점업만 해당
-또한 모든 사업자의 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 증빙자료로 인정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직불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출액의 1%(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1.5%)를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해주며

-신용카드 등에 의한 매출액 증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감면해줍니다.

-매출액이 전년도보다 130% 초과한 경우에는 증가된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감면되고, 일정기간 세무조사가 면제됩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교부받으면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자의 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 증빙자료로 인정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영수증보상금제도의 시행으로 신용(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자를 대상으로 매월 추첨하여, 각각 최고 1억원의 당첨금을 드립니다.

탐방 우리 지역의 사업소 ㉓ 선우석재

고객만족에 부응하는 석재 임가공 전문업체



대표 배철수

"안전의 생활화가 최고의 제품을 생산한다"라는 경영방침으로 건축, 조각, 조경, 문화재 등에 필요한 양질의 석재를 생산, 공급하며 석재산업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는 선우석재(화현면 지현리 334-24 대표 배철수).

선우석재는 신진축문화 창조와 인류의 아름다운 공간창출을 위해 대리석, 아치석, 난간석, 간판석, 인방석, 경계석 등 국내석, 화강석, 수암대리석을 취급하고 있는 특수임가공 전문업체다.

을 통해 자율적으로 안전을 생활화 해야 한다"며 "작업 투입 전에 철저한 교육과 관리를 통해 재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해서 신명나는 일터 조성하고 행복이 묻어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선우석재는 재해, 사고 제로화 사업장을 실현하며 배 대표를 비롯해 임직원 전원은 불안정한 곳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현장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또한 배 대표는 "작업공정이 위험하고 힘든 작업이지만 직원들 스스로가 주인의식 고취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며 직원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했다.

최근 선우석재는 석재문화 발달과 함께 견적에서 설계, 시공, 취급하고 있는 모든 분야에 걸쳐 고객이 믿고 고객과 함께 하는 업체로 보장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선우석재는 건축물과 공간조성의 양상이 고급화되고 있는 현 추세에 맞춰 양질의 국내산 석을 업체에 공급하며 건축문화 선도해 나가고 있다.

국내산 석은 색채와 무늬가 아름답고 뛰어난 쓰임새가 매우 다양하고 반영구적 이어서 건축물의 내·외장 마감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의 민속성이 빛어낸 작품품의 하나다.

재해, 사고 제로화(ZERO) 사업장 실현으로 직원들의 안전과 행복, 더불어 매출증대까지

선우석재는 창수면을 시작으로 배 대표의 독특한 노하우와 다년간 협력업체와의 다져진 신뢰로 지난 25일 화현면 지현리 334-24번지에 새로운 동지를 틀고 고객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제품 생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생산과 철저한 납품기일 준수, 확실한 신용을 주무기로 협력업체와의 우의를 다지며 한 계단씩 내실을 다지고 있다. 배 대표를 비롯한 선우석재 임직원 모두는 최고의 제품을 생산한다는 각오와 미래의 탄탄대토를 향해 다각적인 연구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배 대표의 차별화 된 전략과 독특한 기술력이 함께 해 완성된 제품은 저렴한 가격과 적기에 공급함을 원칙으로 고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배 대표는 확장 이전 개업식에서 "석재 임가공 일은 직업 특성상 기계 오동작, 감전 등 위험 요소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직원들 스스로가 사전예방활동

이처럼 석재의 사용도가 많아지면서 각 업체에서 선우석재에 의뢰한 제품에 대해서는 정교하고 높은 품질의 원석을 가까운 제품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계속 이어지는 경기불황으로 불황을 타개 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배 대표는 "국내 석재업체들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값이 저렴한 중국산 석에 밀려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지만 이럴수록 업체들은 나도 할 수 있다는 의욕과 창의력을 한데 모아 국내산 석의 우수함을 세계에 알리고 석재제품에 대한 각종 전시회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석재문화의 메카로 육성시켜야 할 때"라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했다.

직원들의 안전과 행복, 신뢰받을 수 있는 기업의 이미지를 위해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는 배 대표의 진취적인 마인드가 새로운 감각의 공간창출과 건축 내·외장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문의) 031) 531-1962

정병갑기자 jpk61@paran.com



선우석재는 창수면을 시작으로 배 대표의 독특한 노하우와 다년간 협력업체와의 다져진 신뢰로 지난 25일 화현면 지현리 334-24번지에 새로운 동지를 틀고 고객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제품생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산업안전사고 예방

작업장내 지게차 2대의 이동 중 충돌사고

OO급속 사업장 옥외작업장에서 버킷을 설치한 지게차로 폐알루미늄을 싣고 옹해로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다른 지게차 헤드가드 부분과 충돌하여 전복되면서 재해자가 운전석에서 뛰어내리는 순간 지게차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가 발생했다. 재해발생원인으로는 첫째, 화물적재시 안전조치의 미흡



재해발생상황도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게차 유도자를 배치하여 운행하여야 하나 미배치했다. 셋째, 지게차 운전자 안전벨트의 미설치로 지게차 전복시 운전자 안전을 위해 안전벨트를 설치하여 착용해야 하나 미설치 했

다. 이와같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화물적재시 운전자 시야 확보로 지게차 버킷에 화물적재시 운전자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높이 만큼 화물을 적재해야 한다. 둘째, 지게차 안전운행 유도자 배치로 적재된 화물에 의해 운전자 시야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게차 유도자를 배치하여 운행하여야 하나 미배치했다. 셋째, 지게차 운전자 안전벨트의 미설치로 지게차 전복시 운전자 안전을 위해 안전벨트를 설치하여 착용해야 하나 미설치 했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의정부지도원(031-826-6091)